

여수단지 정전 사태로 “가동중단”

1월17일 GS칼텍스 포함 20여사 ... 공정별로 복구작업 수일 소요

여수단지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해 석유화학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1월17일 오후 4시10분경 여수단지에서 20여분간 정전이 발생함에 따라 GS칼텍스 1, 2공장, 제일모직, LG화학, 남해화학, 삼남석유화학, 휴켄스, 에보닉카본블랙 등 20여사의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GS칼텍스를 제외한 LG화학, 남해화학, 삼남석유화학, 휴켄스 등 10여사는 정전당시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가 오후 7시경 정상가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기업들은 가동 정상화를 위해 복구작업에 나섰으나 완전 복구까지는 각 공장이나 공정별 사정에 따라 최대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업차질에 따른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와 여수시 등 관계당국이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섰다.

특히, GS칼텍스는 여수화력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여수화력-용성변전소 선로에 문제가 생기면 공장 전체가 정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전기 공급원이 GS칼텍스와는 달리 용성변전소여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단지에는 현재 268사가 입주해 있으며 규모가 큰 곳은 GS칼텍스, LG화학 등 30여곳이다.

한국전력은 “정전사고가 오후 4시8분경 여수단지 변전소인 용성변전소에서 여수화력까지 공급되는 15만 4000V의 송전선로가 강풍으로 전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정전사태가 났다”며 “(전력 피크에 따른) 수급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1/18>